

# “남 원망 말고 자기 업 돌이켜 보라”

## 도영 스님

(前 조계종 포교원장)

빛꽃 십리 길을 달려 종남산 송광사 일주문 앞에 섰다. 한 호흡 가다듬고 산문에 들어서자 곰상하게 생긴 두 장승이 반갑게 맞이한다. 장승은 “이 문에 들어올 때는 덧없는 일음(일음)은 버리고 한 마음 돌이켜 자기 존재의 실상을 밝혀라(入此門內 莫存知解)”는 경구를 들고 있다. 세간의 시시비비를 내려놓고 산문에 들라는 가르침을 품고 앞으로 나아가다보면 금강문과 사천왕문을 지나게 된다. 이 세 개의 문을 세워 둔 것은 마음속에서 들끓던 번뇌망상을 하나씩 내려놓으라는 의미인 것이다.

송광사는 구산선문(九山禪門) 중 하나였던 가지산문을 개창한 신라의 보조국사 체징(普照國師 體澄) 스님이 세웠다고 하니 아득한 천년의 세월을 이어온 그 앞에서 시간을 헤아린다는 것이 무슨 소용 있느냐고 싶다.

경내에 들어서면 아홉자모양의 종고루와 대웅전, 관음전, 지장전, 나한전, 극락전, 적묵당 등 넓은 대지에 펼쳐진 당우들이 한눈에 들어온다. 대지 한 자락씩 차지하고 있는 당우들의 배치가 군더더기 없이 가지런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주지 도영 스님이 당우들을 재배치했다고 한다. “근육질로 다져진 금강역사의 힘을 빌어서 당우들을 앞뒤로 옮겼으면 하는 농담쯤으로 들으려고 했더니 아니란다. 신기술을 이용하여 진짜로 당우들을 옮겼다고 하니 놀라울 뿐이다. 이쯤 되면 도영 스님이 금강역사로 비쳐진다.

도영 스님 처소 앞에 홍매와 백매가 쌍을 이루어 불을 밝힌 듯 환하게 피어있다. 한겨울의 추위와 눈보라를 이기고 나온 귀한 꽃이라 오랫동안 눈맞춤했다. 사무치는 향기 속에, 겹겹의 꽃잎 속에는 인고의 시간이 녹아있음을 어찌 모르랴.

“요즘은 다들 어렵다는 소리 밖에 하지 않는데, 나는 보릿고개도 겪었고 어릴 때부터 힘든 것을 다 겪어보았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지금의 어려움 정도는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어렵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얼마나 풍요롭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항상 ‘갑사합니다’ ‘이만하면 됐어’ 하고 지족(知足)할 줄 아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만족을 모르는 사람이 불행한 사람이고 어리석은 사람이야. 욕심은 채워도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구멍 풀린 항아리와 같은데 그것을 채우려고 하니 어리석지요.”

도영 스님은 벽에 걸린 액자를 가리키면서 “석주 스님이 써주신 글인데, 이 방에 오는 사람에게 꼭 한번 읽어보라”고 한다.

지족상락 능인자안(知足常樂 能忍自安), 만족함을 알면 항상 즐겁고 능히 참으면 편안함을 안다

“사람들은 행복의 조건을 자신이 미리 작성해 두잖아요. 경제력도 있어야겠고 뭐 명에도 좀 있어야 하고 참으로 많은 조건이 따라 붙는데, 그것이 잘못된 거라. 행복은 내 마음 안에서 찾아야 하고 내 조건 안에서 만족해야 하는 것이지, 바깥에서 구하려고

하면 얻을 수가 없어요. 가족과 함께 밥을 먹을 수 있음이 행복하고, 힘들지만 밖에 나가서 일을 할 수 있음이 행복이라 여기면 하루에도 수없이 감사할 일이 생기고 행복한 일만 벌어져요. 한 번 그렇게 해보세요.”

도영 스님은 2001년 조계종 포교원장 소임을 맡아 처음으로 5년 임기를 다 채우고 물러났기에 또 포교의 패러다임을 바꾸어놓았기에 아직도 사람들의 칭송이 자자하다. 스님은 이런 소리는 컷등으로 넘겨 버리고 “개인적으로는 아주 바쁘게 살았던 그때가 보람된 시간이었다”고 짧게 언급할 뿐이다. 5년의 임기 동안 일구어놓은 것을 일일이 다 꼽을 수 없을 만큼 다양하다. 그중에서도 신도교육의 체계화와 군포교를 널리 확산시켰다는 것 그리고 템플스테이 사찰주말수련회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 사찰의 문턱을 낮추었다는 것을 들 수 있다. 스님은 1980년에 김제 금산사 주지소임을 맡으면서 포교 원력을 세운 분으로 말사 주지사님들에게도 ‘포교를 하지 않으려면 주지직을 내놓으라’고 했을 정도이다.

“저는 부처님 가르침 자체가 21세기의 대안이라 생각하기에 불교를 널리 알리고 싶어요. 불교의 연기법, 동체대비사상, 불이(不二)사상을 알게 되면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생각에서 벗어나 남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바뀌게 되요.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 포교이고 교육인 것이지. 저는 포교를 하면서 그런 큰 욕심을 내지 않아요. 불교로 인해 좀 더 마음 편하

관하기 좋고, 한 개 먹고 나면 속이 든든하다고 그래요. 초코파이 큰 것 한 상자라 라면박스 크기인데 그 안에 8박스가 들었으니 팔정도(八正道)를 닦아라. 작은 한 박스 안에는 12개가 들었으니 십이연기(十二緣起)를 관하라. 큰 박스 안에 든 초코파이 개수를 더하면 96개가 되는데 이것을 세 개씩 나누어 먹으면 32사람이 먹을 수 있으니 삼십이관음(三十二觀音)이요, 부처님의 32상입니다. 그리고 96개를 2개씩 나누어 먹으면 48사람이 먹을 수 있으니, 법장비구의 사십팔대원(四十八大願)을 이루어 극락세계를 만들 수 있잖아요.”

초코파이 한 상자 속에 불교의 기본교리가 다 담겨 있으니 진정 살아있는 법문이 아닌가 싶다. ‘포교는 수행자라면 끝없이 해야 하는 소명’이라 여기는 도영 스님의 간절한 원력을 엿볼 수 있는 법문이다. 부처님의 삶 자체가 전도(傳道)의 의미를 생각할 때 포교는 모든 불자들의 소명이기도 하다. 스님을 마주하고 있으니 “떠나거라. 한 길로 두 사람이 가지마라”고 한 부처님 말씀이 더욱 오롯하게 다가온다.

침실 평생을 대나무처럼 곧고도 반듯하게 수행자 생활을 할 수 있었네 그 비롯됨 내심 공경했다. 유향(香)이었던 아버지로부터 “남에게 큰 이익을 줄 수는 없다 해도 피해는 주지 않아야 한다”는 가르침을 받아왔는데 그것이 평생의 지침이 되었다고 한다.



도영 스님은 1961년 월주 스님을 은사로 출가. 금오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석암 스님을 계사로 비구계 수지. 1969년 금산사 승가대학을 졸업하고 1970년 동국대 대학원 석사과정 수료. 1980년, 1984년, 1994년 세 번에 걸쳐 금산사 주지역임. 조계종 총회의원 역임. 1999년 조계종 포교대상 수상. 조계종 포교원장 역임. 지금은 원주 송광사에 주석.

“포교 안하면 주지자리 내놔야”... ‘초코파이 법문’ 유명 탁발 다니는 스님뒤 따라다니던 어린시절부터 ‘출가인연’

게 살 수 있다면 자신의 바른 길을 찾았다면 그것이 바로 부처님 가르침을 전한 보람으로 생각합니다. 군인장병들에게 수계를 해주고 있는데, 수계를 받은 것만으로도 그 사람의 기억 속에는 불교가 남아있어요. 이것이 인연이 되어 불자가 된다면 더욱 좋겠지요.”

저마다 부처 씨앗이 함장 되어 있음을 모르는 이에게 다시 한 번 씨를 묻어주는 것이 포교가 아닌가 싶다. 하지만 스님은 씨앗이 언젠가는 꽃으로 화하게 될 그때가 올지 아니 올지를 말하지 않는다.

도영 스님의 ‘초코파이 법문’은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는 유명한 법문(法門)에 일부분이었다. 1985년 연무대에 처음으로 법문을 하러 간 것이 군포교의 시발점이 되었는데, 군포교를 열심히 하다 보니 초코파이 법문까지 생겨난 것이다.

“아직도 군인들이 좋아하는 것이 초코파이인데 보

일반불자들이 어떻게 하면 올곧은 신심을 키워나갈 수 있는지를 여쭙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해도 깊은 마음으로 진실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어떤 일에 부딪혔을 때 마음이 잘 다스려지지 않는 것이지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생각하고 부처님의 일생을 떠올리면서 자신의 삶을 그것에 접목시켜 살아간다면 날마다 좋은 마음으로 변모할 것입니다. 자기의 불행은 남 탓으로 돌리는 것이 우리 사회에 만연되

## 사업장의 법구 금강 삼고저

2009년 장사성공과 사업성공 축원불공 마쳐!



**부처님 제1의 비방법구**

경기가 너무없어, 장사가 너무안되, 문을 닫아야겠어, 요즘 사업을 하는 중생들의 푸념이다. 반면 목도 잘오고 불경이에도 흥왕을 누리는 점포와 사업장도 많다. 풍수학적으로 보면 부자가 되는 터가 있고, 패망하는 터가 있다. 그리고 항상 겨우겨우 먹고사는 터가 있다. 한걸음 한지붕 밑에서도 좋은터가 있어 사업이 잘되고 장사가 흥왕하는 것을 볼수 있다. 장사가 안되는 자리를 보면 보이지 않는 집귀의 방

**장사가 어려운 사업장의 비방! 사업이 어려운 사업장의 비방!**

해로 오는손님의 마음을 흔들며 문앞에서 방황하게 만들고, 들어왔다해도 결정을 못하게 방해하며, 일하는 사람이나 직원들은 오래 있지 못하고 첫손님이 첫손님이 되면 하루종일 헛손님으로 장사를 힘들게 잡귀가 조화를 부린다. 부처님 제1의 생활법구인 금강삼고저는 장사 성공을 기원하는영험의 법구로 우리나라에서는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 거상들이 사업장에 걸어 놓았던 금강삼고저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유물로 볼수 있다. 경제대국 일본의 각종 식당과 점포, 각종 사업장, 산재위험이 있는 사업장 등에 금강삼고저가 걸려 있는것을 쉽게 볼수있다. 불광사에서 장사흥왕 및 사업번창과 산재예방의 축원불공을 마치고 시판하는 금강삼고저는 가로8cm 세로3.5cm에 벽에 걸게 고리와 수슬이 달려 있어 사업장 안에 걸어 놓으면 금니로 제작해 풀위도 있다.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드린다. 보시가격:85,000원 (신용카드 분할가)

문의 (02)741-4488  
농협 : 032-12-193445 이상하

**장사 성공을 축원합니다**

식당, 가든, 미용점, 보석상, 부동산중개소, 이미홍실, 목욕탕, 다방, 정육점, 노래방, 주점, 모텔, 여관, 병원, 각종학원, PC방, 당구장, 서점, 인쇄소, 문방구, 기원, 복원방, 각종스포츠센터, 핸드폰점, 분양사무소, 안경점, 신발매장, 전자제품매장, 미용실, 방앗간, 공장, 주유소, 산재사고 위험 사업장 등 어려운 사업장의 비방.



**2009년 제일 힘든 나가는 삼재시작! 나가는 삼재화를 소멸하고 승리하는 비방!**

2007년 드는삼재 2008년 목는삼재 2009년부터 나가는 삼재가 시작된 소띠,뱀띠,닭띠는 앞으로 2009년 말까지 제일 어렵다는 나가는 마지막 삼재해로 각별히 조심하고 자중자해야하며 근신하는 마음으로 조용히

## 2009년 가는 삼재조심 소띠,뱀띠,닭띠

제일힘든 떠나는 삼재소멸과 365일 무탈 발원 금강저

지내야 한다. 드는해와 목는해에 소띠,뱀띠,닭띠생들이 삼재화로 건강으로 고통받고, 삼재관재수로 법적 문제에 휘말려 고통받고, 삼재액운으로 사업이 실패하고 재산을 소진하며, 가정이 파탄되고, 하는일마다 뜻대로 되는일이 없으며 갖가지 어려운 고통속에 삼재화를 당하는 중생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남은 2009년말까지 나가는 삼재가 제일 어려운 시기이므로 완벽한 비방을 하는것이 안전합니다. 불가에서는 삼재기간중 삼재화를 막아 액란을 모면하는 비방으로 중생들에게 부처님법구인 금강저를 몸에서 내리고 다니게 하고 나가는 삼재해에는 365일간 삼재소멸 불공과 무탈기원을 합니다. 또한 삼재기간중 삼재소멸비방을 잘하고 자중자해야하며 공덕을 쌓으면 삼재

기간에도 크게 성공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삼재소멸금강저는 제일 어렵다는 나가는 삼재소멸 축원불공을 마치고 불광사에서 전화로 신청하면 금강저를 보내드립니다.

금액45,000원 문의 (02)741-4488  
입금농협: 032-12-193445 이상하

1929년생 뱀띠	1957년생 닭띠	1985년생 소띠
1933년생 닭띠	1961년생 소띠	1989년생 뱀띠
1937년생 소띠	1965년생 뱀띠	
1941년생 뱀띠	1969년생 닭띠	* 적색 글씨에 해당되는 분은 약삼재입니다.
1945년생 닭띠	1973년생 소띠	
1949년생 소띠	1977년생 뱀띠	
1953년생 뱀띠	1981년생 닭띠	

## 천연백수정108 염주

승리의 염주, 행운의 염주, 불멸의 염주



**인연의 귀인을 만나 성공하는 인연염주! 건강 장수와 행운이 함께하는 평생염주!**

영원히 살아 쉬는 천연백수정 108 법륜 염주가 수입되어 시판하고 있어 화제다. 천연백수정은 미륵 부처님 이마에 점안을 하는 보석으로 어둡고 고통

특별선물 : 단주

속에 있는 중생들을 구제하고 밝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영원히 점안해 있는 것이다.

인도에서는 천연백수정을 불멸의 부처님 보석으로 간직하고만 있어도 사업이 망하지 않으며, 병든 중생은 건강장수하고, 인연의 짜과 인연의 귀인을 만나 근심 걱정이 해결되고 그 인연의 만남으로 원하는 계획이 성공되는 행운의 보석이라 해. 인도 부유층 사람들이 천연백수정을 염주로 만들어 예불법구로 사용하고 있다.

고대 인도 부유층 인사들과 아라비아 거상들의 전통모자에는 행운을 안겨주는 불멸의 천연백수정을 부착하고 다니는 것을 영화에서 종종 볼 수 있다.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것이 인연법이다.

**불자라면 누구나 염주는 필수품!**

한사람의 인연의 귀인을 만남으로 인생이 바뀌는 것을 볼수 있다. 환자는 인연의 의사를 만나면 고통이 사라지고, 사업가는 한사람의 인연으로 사업이 성공되고, 원대한 불사도 한사람의 인연으로 불사가 완성 되는것을 볼수있다.

불멸의 평생염주인 천연백수정 108염주는 사용하실분의 원하는 소원이 성취되게 성명과 생년월일을 알려주시면 100일 축원불공을 올려드리며108염주와 시판기념으로 항상 가지고 다니는 천연백수정 단주를 특별선물로 드립니다. 가격:95,000원 (카드분할가)

문의 (02)741-4488  
농협 : 032-12-193445 이상하